

## 5G 가입자 100만 돌파 눈앞

## “AR·VR 체험해보세요”... 이통3사, 고객 모시기 총력전

SKT, '0순위여행' 참가자 모집  
LCK 생중계 5GX 멀티뷰 서비스

KT, '캐치히어로즈 5G 원정대'  
벤치비 이용 품질확인, 결과 공개

LGU+, 스타필드 하남·고양점서  
5G·U+TV 체험 팝업전시존 운영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이 약 두 달여 기간 만에 이번주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세를 몰아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 체험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는 지난달 말 77만8600명, 지난 5일 80만명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 출시 이후 'LG V50 씽큐'도 시장에 나오면서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5월 한달 만에 50만7000여명이 늘었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1만9000여명씩 증가한 셈이다. 고가의 단말로 인해 5G 가입자



(왼쪽부터)모델들이 SK텔레콤의 '0순위여행' 참가자 모집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 모델들이 13일부터 진행되는 캐치히어로즈2 초능력 경품 대방출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각사



증가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었다.

이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증가 속도 추이와도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LTE 가입자 수는 2011년 처음 상용화된 지 1개월 만에 50만명,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5G 서비스를 실감하지 못하는 LTE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5G 서비스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LTE에서도 초기 선점 확보 효과가 있었던 만큼 5G에서도 초기 가입자 확보가 향후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 5G를 대중적 서비스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6일까지 20대를 겨냥한 '0순위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경쟁률 100대 1을 넘긴 0순위여행은 올해 여행자들이 5G 요소를 접목한 영상제작에 참여하게 해 차별화 했다. 참가자들이 코스에 따라 스포츠, 공연, 게임, 액티비티라는 네 가지 주제에 맞는 여행 경험을 한다.

참가자들은 증강현실(AR) 게임을 즐기는 이색 AR게임 체험여행 등에 참여한다. 신규 출시될 AR 게임을 활용해 대결하고, 우승팀은 영국 여행 기회가 제공된다. 토트넘 스타디움 방문과정,

여행 중 라이브공연, 액티비티 체험 과정은 가상현실(VR)로 담아 5G 콘텐츠로 제작된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리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생중계에서 '5GX 멀티뷰 서비스'도 제공한다. 5GX 멀티뷰에는 SK텔레콤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에스 타일(S-Tile)' 기술이 적용돼 12개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으로 중계된다.

KT는 자사 5G 커버리지맵을 따라가는 '캐치히어로즈 5G 원정대'를 꾸렸다. 캐치히어로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캐릭터가 등장하는 KT의 AR 애플리케이션

이션(앱)이다. 5G 원정대는 내달까지 서울 및 전국 광역시의 도심, 대학교, KT X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5G 체험을 진행한다.

속도 측정 앱 '벤치비'를 이용해 즉석에서 KT 5G 품질을 확인하고 결과를 캐치히어로즈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내달 14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에서 U+5G와 U+tv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존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신세계 스타필드와 제휴를 통해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하남점 중앙 광장에서,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고양점 중앙 광장에서 U+5G 및 U+tv 체험존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체험존은 5G 실감형 서비스인 ▲U+AR 존 ▲U+VR 존 ▲3대 미디어서비스 존 ▲U+5G 존 ▲U+tv 존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강남역 인근에서 대형 팝업스토어 '일상로5G길'을 운영하기도 했다. 4월부터 두 달 간 운영되고 지난달 종료된 일상로5G길은 누적 방문객 40만명을 돌파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KT, 협력사 기술·아이디어 유출 차단

'테크케어 시스템' 구축  
열람·폐기 등 완전 자동화

KT는 협력사가 KT에 제안한 기술과 아이디어 등 중요 사업 정보를 보호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 거래 입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테크케어(Tech Care)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담당자별로 따로 관리했던 아이디어 제안과 기술 자료 제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열람 권한 부여, 보관, 폐기 등 관리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했다. 과거에는 개인의 부주의로 관리 과정 중 일

부에서 협력사 사업 정보와 아이디어가 유출되거나 유용될 위험이 있었으나 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을 줄였다고 KT는 설명했다.

KT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서류 발급, 자료 관리 등 기술 거래 입증 프로세스도 간소화됐다. 시스템에서는 KT와 협력사가 주고 받은 기술 자료 요구서를 전자 문서화하고 전자 결재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대표자 날인과 등기 등 오프라인 업무로 커뮤니케이션에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스위스 경찰차 선정

생 갈렌주 순찰·일반업무에 13대  
100kW 이상 출력 등 기준조건 만족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이 스위스 생 갈렌 주 경찰차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스위스 생 갈렌 주 경찰에 지난달까지 총 13대의 '코나 일렉트릭'을 공급했다. 13대 중 5대는 순찰차로, 나머지 8대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된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경찰차 선정과정에서 '코나 일렉트릭'은 생 갈렌 주 경찰이 마련한 엄격한 조건과 테스트를 만족시켰다.

생 갈렌 주 경찰은 경찰용 전기차 최저요건으로 ▲출력은 100kW 이상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이상 ▲구매비용은 5만 스위스프랑(CHF)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생 갈렌 주 경찰 커뮤니케이션 총괄 한스피터 크뤼시는 "코나 일렉트릭은



스위스 생 갈렌 주 경찰청사 앞에 '코나 일렉트릭' 경찰차가 주차돼 있다. /현대자동차

100kW가 넘는 출력과 400km가 넘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인승이면서도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춰 생 갈렌 주 경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나 일렉트릭은 일반 차량에 비해 구매비용은 조금 높지만 유지비용이 낮아 이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경찰차는 기동성은 물론 공공기관차이기 때문에 구입 및 유지비용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코나 일렉트릭이 스위스 경찰의 높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경찰차로 선정된 것은 일반차량 못지 않는 높은 상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르노삼성 '더 뉴 QM6 LPe' 사전계약 시작

르노삼성자동차가 10일부터 더 뉴 QM6 LPe(LPG 엔진 버전)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QM6 LPe는 르노삼성이 국내 출시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 라인업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디자인과 LPG 파워트레인을 갖춘 '국내시장 유일 액화석유가스(LPG) SUV(다목적스포츠차량)'이기도 하다.

LPG탱크를 트렁크 하단 여유분 타이어 공간에 탑재할 수 있는 도넛탱크 기술이 적용되면서 넓은 트렁크 공간이 확보됐다. 3700rpm에서 최대토크는 19.7kg·m. 3세대 LPI(Liquid Petroleum Injection) 방식 엔진을 채택해 겨울철 시동불량 우려를 해소했다.

탑재된 도넛탱크 용량은 75리터로,



르노삼성자동차 더 뉴 QM6 LPe.

80% 수준인 LPG 60리터를 충전했을 경우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트림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및 과세 기준 ▲SE 2376만~2445만원 ▲LE 2533만~2602만원 ▲RE 2769만~2838만원 ▲RE Signature 2946만~301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부킹닷컴'서 숙소예약하면 해외로밍 무료

LG유플러스, 23일까지 이벤트

LG유플러스는 해외 여행 이용자를 위해 '부킹닷컴' 사이트에서 해외 숙소를 예약하면 해외로밍 요금제 무료 이용 혜택과 추첨을 통해 국내외 최고급 호텔패키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23일까지 연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 전용 부킹닷컴 사이트에서 예약한 객실 요금이 1박에 10

만원 이상일 경우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로밍 요금제(기간형)'를 숙박일 수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로밍 요금제는 하루 이용료 1만 3200원에 속도용량 제한없이 데이터 무제한, 함께쓰기 데이터 일 5GB(소진시 200kbps), 해외에서 받는 음성통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국내 숙소를 예약한 고객은 숙박일수 만큼 일 1만원, 최대 10만원까지 통신요

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부킹닷컴 사이트에서 숙소 예약 후 이벤트에 응모해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콤포테호텔, 일본 롯테호텔 아라 이리조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등 국내의 호텔 숙박 이용권 또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0만원권)을 제공한다.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카카오톡이 모티콘을 증정한다.

/김나인 기자